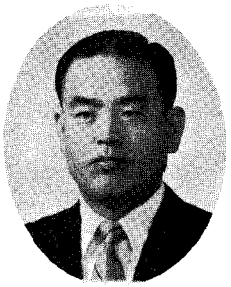
경영구조면에서 본 채란양계업계



윤 도 진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장)

불황은 어디서 왔나

양계업계의 불황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면 이 불황의 심도는 어느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토록 극심한 불황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불황타개의 길은 없었을까? 불황의 원인이 가깝게는 1978년도의 전반적인 경제호황으로 말미암아 축산물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쇠고기, 돼지고기를 상당량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 충족을 위하여 많은자금을투입하여 축사의 증설과 가축의 수를 늘리는데 앞을 다투어 수용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닭을 기르게 되었으며 규모의 대형화에 앞을 다투어 증식 일변도의 경영에 몰두 하면서 수요면은 거의 생각조차 하지않고 닭은 기르기만하면 마리수와 수지는 비례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규모의 변천은 농가부업 형태에서 전업규모내지는 기업형태로 발전되며 사육수수는 느는 반면 사육농가는 감소되는 것이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이다. 선진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볼때 예외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축산은 좀 다른 점이 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 농민의 소득 분포는 경종농업, 고등소채, 축산 소득외에 공업화로 인하여 농촌인력이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농외 소득이 주업인 농업 소득을 앞지를 정도이며 짧은 시간이지만 노동력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농민은 경종 농업외에는 별로 소득을 높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0.8헥타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농업을 직업으로 한다는 사실이 참 신기할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물이나 채소원예, 기타 특용 작물이 어느 한해 수지가 맞았다고 소문이 나면 그 이듬해에는 생산 과잉이 일어나는 것이 거의 상식화 되어 있다. 즉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조절할 제도적 장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농민은 일거

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생산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양계를 숙명처럼 인내하지 않을 수 없는 큰 비애가 있다.

무턱대고 증설되는 부화장 문제

채란양계 면에서 볼 때 종계장의 규모확대 또한 괄목할 만큼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으며 병아리란 이름만 붙이면 날개가 돋힌 듯이 잘 팔리다 보니 혈통이나 품질은 아랑 곳 없이 어느것이 참 병아리인지 조차 알 수없을 정도로 그 품위가 땅에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종계장이란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종자를 만든다는 존엄성이나 중요성은 거의 망각되어 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부화장이다. 채란업 보다는 부화업이 수지가 더 맞는다는 점 하나로 겁 없이 늘어난 것이 종계장이요. 부회장이다. 호주에서는 채란 양계장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잡지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지난번에 TBC—TV에서 방영한 세계의 식량절약 편에서 스위스의 포도원을 사려면 먼저 포도원의 관리 능력 여부가 엄정 심사된다고 한다. 그것도 20 : 1이란 엄청난 경쟁자를 물리치고 포도밭을 산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느꼈다. 종계장이나 부화장이 그토록 쉽게 운영이 되며 그토록 쉽게 돈을 버는 직업이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양계 산업의 앞날은 매우 염려스럽다. 그리고 저질의 병아리의 생산은 곧 생산성이 낮아지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 할 수있다. 즉 육성율에서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료 효율에도 큰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할 때 양계 농가의 경영면에서 일어나는 손실도 크려니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안할 때 저질의 병아리생산이야 말로 국가의 통제기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사료의 품질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무절제하게 생산된 병아리를 먹이기 위한 옥수수의 도입량을 참고하여 보더라도 얼마나 무모한 양계인가하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1977~1980년까지 도착 기준으로 조사한 바로는

1977	1,190,000 M/T	100 %
1978	1,573,000 M/T	132 %
1979	2,586,000 M/T	217 %
1980	1,974,000 M/T	166 %

위에서 나타내 주듯이 1977년의 옥수수도입량 1,190,000 M/T 이 수입된 다음해는 축산물의 고가 판매가 이루어져 모든 축산인들이 경영면에서 호조를 보였으나 1979 년도의 2,586,000 M/T 수입이 되면서부터 각종축산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다 적은 양의 사료로 보다 많은 고기와 계란을 생산하도록 합리적인 사료를 생산 공급하는것이 사료 공업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지워진 무거운 책임이요 의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 오늘의 사료 공업은 양에 치중한 나머지 적지 않은 낭비를 하여 왔으며 지금도 그 낭비는 계속되고 있다. 축산업이 건전하게 발전되려면 배합 사료의 질이 보장될 시점부터라 할 수있다.

생산원가 구성면에서 볼 때 사료 가격의 앙등이 원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요 그외도 인건비를 위시하여 전력요금, 기타 직접적인 경비도 계속 상승 일로에 있다. 그러나 계란가격의 상승폭은 원가 상승 요인과 비례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로 등장되고 있다. 지나간 2년간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료 가격의 상승폭은 대략 100%인상된 데 반해 계란가격은 23%에 이르고 있다. 더군다나 계속적인 사료가격 인상은 계란의 적자의 폭이 더욱 더 넓

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연을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듯하다. 즉 생산비에도 미흡한 계란을 왜 계속 생산하고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심스럽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불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불황 타개의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불황의 원인은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78년도의 경제 호황으로 말미암아 수요가 많이 늘어난데서 부터 시작은 되었다고 할 수있다. 갑자기 늘어난 수요 충족을 위하여 채란업의 관련 산업이 비교적 빨리 증산체제로 전환은 되었으나 79년도의 경제 성장이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수요의 감퇴가 가속화 되었다. 계란 수요의 급격한 감소 현상은 왔지만 생산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불황을 장기화 하고 있다. 축산업의 취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영면에서 볼 때 닭을 갑자기 줄여 나가기도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닭의 수명이 적어도 500 일령 이상 지속된다는 이유이고 시설과 인력 감소등 어느 하나 손쉽게 일을 중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양계업이 전업 형태에서 기업 형태에 까지 크고 적은 양계업자가 이 업을 통하여 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며 자녀들의 교육도 시켜 나가고 있으며 길게는 수 십년씩 이 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양계 농가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황이 왔다고 해서 손쉽게 타 산업으로 전환될 수가 없다. 또 우리모두의 염원이 듯이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설마 좀 나아져서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루의 희망도 가지고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이 집념은 손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겪어 나가다 보면 양계업이 마치 투기 나 노리는 듯한 도박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 이제 불황을 빨리 종식시키는 길은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해서 수요에 맞는 생산을 하면 생산비가 보장된 계란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산수적인 계산은 분명한데 이 산수가 잘 맞지를 않는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불황타개 방안을 적어 본다면 이러한 이야기다.

소비촉진위한 적극적방안 강구되어야

계란을 생산하는데 직접 관련된 부화장, 사료, 계란상인, 채란업 등 4업계의 대표자들이 대책을 협의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한 걸음씩 양보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즉 병아리의 값을 낮추고, 사료값도 낮추고 유통 마진도 줄여 각 계로부터 거출된 기금을 통하여 소비 시장의 확대를 위한 선전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으로 하여금 계란을 많이 먹게 하여 불황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읽은 적이 있다. 언제인가도 본지에 기고된 바 있지만 근간에는 卵業公社 (Egg Board) 를 통하여 일년간에 거두어지는 650萬$의 기금이 삼단계로 소비 촉진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국민 학교의 교육에서 부터 계란의 영양적 가치를 가르치며 학계에 연구비를 지원해서 계속적인 연구 사업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또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매스콤을 통하여 선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전이 주효하여 국민 일인당 두 개라는 소비 증가를 가져왔다는 랑보를 본 바가 있다. 이웃 나라 日本은 좀 양상이 다르지만 사료의 판매 가격에 기금을 가산한다. 모아진 기금을 가지고 연중 가장 값이 싼 시기를 택하여 매입한 계란을 저장하여 두는 제도이다. 일본은 지금도 상당량의 계란을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계란값을 유지하는데 적지 아니한 기여가 있다고 한다. 우리의 처지를 좀 살

펴보자. 미국과 같이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기 방어 기구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계란 판매 제도면에서 양계장이 바로 계란 판매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까닭에 기금 거출이 불가능하다. 선진국에서 유통되는 도매시장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계란의 유통과정에서 일정한 기금거출은 불가능 하다. 다만 기금 마련을 하려면 사료에다 가산하는 일본식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불황이 이년여 계속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타개할 방안을 내세우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은가? 수요와 공급면의 균형을 잃었을 때는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로 생산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이는 두가지 중 하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두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잃었던 균형은 속히 찾아질 것이다. 양계를 하려면 두세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즉 병아리와 사료다. 우리나라의 부화장이 허가제로 바뀌었다고 하나 실제로 행정부로 하여금 부화장에 대한 통제 기능을 얼마나 행사할 수가 있을까 하는문제이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병아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양계장에 계속 공급되고 있다. 일년에 얼마나 많은 병아리가 생산, 공급되고 있는지 그 수는 헤아릴 길이 없다. 수요, 공급을 운운하려면 통계의 원천이 되는 부화장에서 집계되는 병아리의 숫자조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수요, 공급의 운운은 넌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병아리의 질이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공급 부족을 충족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상품의 고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급화로 급선회를 하지 않으면 수출에 적지 아니한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를 자주 읽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병아리도 공급 부족을 거듭하다 보니 내용이야 어떻든 수를 채우기가 바빠서 좋은 병아리 생산이 되지 못하였다. 좀 심하게 말하면 혈통도 분명치 아니한 병아리들이 시장을 판치고 다닐 정도에 까지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다. 여기에 뒤따른 것이 사료의 공급이다. 갑자기 늘어난 닭의 사료 공급도 병아리 공급 못지 않게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아니한가? 막대한 외화를 가지고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 형편에 비추어 보면 닭의 식량이기에 앞서 피와 땀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이 귀한 달러를 가지고 사온 사료는 조금치라도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축산을 모르는 분들의 입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바로 계란이나 고기를 직접 수입해서 먹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반문이다. 국제수지가 해마다 악화되지 않는가? 옥수수도 어분도 밀기울도 어느 하나도 달러없이 가져다 쓸 원료가 없다. 옥수수 한톨, 어분 한줌 최상의 효율에 끌어 올리려는 피나는 연구가 없이는 이 냉혹한 국제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 卵粉이 수입되어 업계에 적지 아니한 충격과 위협을 주었다. 앞으로 이 위협은 더 한층 가열 될 전망은 너무나도 크다. 二年여란 장기간의 극심한 불황은 공급 부족을 예고하는 것이다. 만일 공급 부족이 왔을 때 卵粉의 수입을 막을 힘이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우리는 양계업의 오늘을 적나라하게 진단을 단행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생산체제는 전근대적인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있으나 국제 경쟁의 도전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관용을 베풀려 하지도 않는다. 마치 복싱의 냉혹한 승부가 연습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권투 선수를 허용치 않는 것과 같다. 이 불황의 장기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료의 외상매출이다. 혹자는 사료의

외상매출고를 600 억~800 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료의 외상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얼마의 외상이 적정 수준이겠느냐 하는 수치문제이다. 병아리를 사다가 초산일령에 도달하기 까지의 2,000원이 소요된다.

사료공장의 과다한 외상경쟁… 계속된 불황 초래한다

값도 각기 차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600 억이면 400 萬 수를 길러낼 외상매출액에 대등하다 우리가 지금 400 萬 수의 닭을 안 길렀다고 하면 하루 평균 280 萬개의 계란 공급량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계란값은 생산비를 훨씬 상회한 고가판매가 분명히 보장될 것이다 그런데 과다한 외상경쟁에서 오는 낭비 또한 많은 손해를가져오고 있다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소되는 방안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한다 즉 적과 싸워 이길려면 군의 정예화가 필승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듯이 이 불황을 하루 속히 종식시키는 길은 비정상적인 사료의 유통이 정비되지 않는 한 계란가격의 회복은 요원하다고 본다. 앞으로는 주무부로 하여금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사료와 병아리 생산에 제동이 가해져야만 할 것이다 약은 입에는 써서 먹기는 힘들지만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마시는 것처럼 이 무질서한 생산 및 유통구조에 새로운 제도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

(1)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수지가 맞는 양계를 도모하자.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양계업도 좋은 병아리, 합리적인 사료, 계사, 시설, 그리고 세심한 관리등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사료공장을 향하여 값은 비싸고 질은 나쁘니 또 계란장사가 너무 많은 이윤을 추구하느니, 병아리가 어쩌니등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자주 하고있다 물론 우수한 병아리를 사고 값이 싸고 좋은 사료를 잘 공급해 주며 유통과정에서도 저렴한 마진으로 유통시켜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이 있다. 모든 여건이 내 양계장에 유익 하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여건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그것은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기쉽다. 우리는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양계장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필요하다. 가령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생명의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면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양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 하겠는가? 마치 한가지로 지금의 양계업의 현황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보다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곧 경영의 합리화라 할 것이다 내 양계장을 들여다 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쳐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2) 유통과정의 개선

우리 농산물이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옮아가는 과정이 매우 원시적인 유통체제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이 과정이 근대화되지 않는 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실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의 바라는 바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팔고 있는 계란의 중량은 정확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유통마진은 적정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을까? 또한 유통단계는 필요 이상의 과정은 없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마련된 조직이 바로 서울경기 협동조합이다 짧은 이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은 바가 있다. 우리는 유통과정에서 과다한 마진이 가산되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는 동시에 손해를 보게 되며 소비신장에도 적지않은 억제 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산자들 가운데 뜻이 있는 분은 유통구조의 개선을 자주 이야기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웬지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조직된 생산자 조합에는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계란이 서울에서 하루 소비되는 량을 대충 400 萬～500 萬개라고 이야기 한다 그 중에 100 萬개만이라도 생산자의 조직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힘이 마련된다고 하면 시장가격 개입에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조합은 생산자에게는 정확한 난중을 요구하고 있으며 판매원들에게는 정가판매를 계속 지시하고있다. 협동조합이 정착되어 생산자들은 마음 놓고 생산품을 조합에 맡길 수 있으며 조합의 상표만 보고 믿고 살수 있는 신용을 얻기 위하여 지나간 짧은 시간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이 노력은 쉴수가 없다. 서구라파의 협동조합 운동도 벌써 200 년 전으로 소급된다고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참여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생산자의 조직강화

생산자의 조직이라고 하면 크게 나누어 협회와 협동조합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자 조직이 여러 단체 있기는 하나 자생하는 단체가 별로 없다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가 염원하는 생산자 조직은 우리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로 힘을 가지는 조직이 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힘이라 함은 모이는 힘과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실력을 의미한다 이 두가지가 합하여 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힘의 원천은 구성원 자체를 의미한다. 한 국가에도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모두 다 기피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전반에 걸쳐 중농정책은 표방하면서도 도 중화학 분야나 수출지원정책에 밀려 농업전반에 걸쳐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회임기간은 긴 산업인데 금융지원 면에서는 거의 외면되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된다. 농업이 중시되는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말로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하지 말고 농민의 자녀들이 농민의 자녀된 긍지와 자부심이 우러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후계자 양성을 위한 기금이300 여억이나 마련되었다고 하여 얼마나 많은 농촌후계자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물론 기금도 매우 중요하나 이보다 더선행 되어야 함은 농촌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이 기금의 출현의 목적과 부합될 것이다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 바로 축산업 협동조합의 설립이라고 본다 지역조합이나 업종별 조합으로 계속 발전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모든 축산인은 구경꾼이 되어 수수방관하지 말고 참 주인으로서 주어진 모든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나와 우리 모두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생산자의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축산인에게 부여된 책임이요 의무이다. 양계의 새로운 장을 찾는다면 1965년으로 소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계 종계가 수입되어 병아리가 농가에 보급되는 해로 잡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은 양계경기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그 무렵은 사료공장이나 부화업자 등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지식에 대한 세미나를 여는 기회가 많았다. 목적이야 어

떻든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도 새로운 사양관리나 질병문제 등 전반적인 지식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공헌을 한 바가 있다. 70년대에 접어 들면서 그렇게 자주 열리던 모임이 차츰 사라져 이제는 양계분야의 세미나는 거의 종식된 감마저 든다. 여기에서 중요한 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날로 심화되어가는 쟁사회 새로운 문물을 받아 들여 국내외적인 경쟁에 대처해 나가야 되겠는데 마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졸업장을 받아 드는 시간부터 책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양계산업은 이토록 장기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현상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이 문제 타결을 위한 모임도 별로 없는 것 같으며 더우기 정부나 사회가 이 문제를 염려하는 바도 극히 미미하다. 그것은 생산자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정부나 사회에 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어떤 획기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는 없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리 수를 늘이는 일을 스스로 자제하는 용단이며 아울러 계란은 완전식품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소비선전을 게을리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늘 우리의 권익을 찾아야만 산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와 같은 모임에는 매우 소극적인 면이 많다 선진국의 예를 말한다고 하면 미국의 경우는 채란업의 65%가 계열 생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부로일러의 경우는 90%이상이 계열체제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러한 경영체제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할것 같다. 왜냐하면 계열생산의 발단이 자연발생적인 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 분야가 연합하여 하나의 산물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거의 각 분야가 단절된 상태내지는 적대시 하는 감마저 든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사료, 부화장, 양계장, 유통과정, 모두가 합심하여 타개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건만 각 계가 높은 장벽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순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가축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옥수수 도입량의 조절만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illegible]된다. 이것도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매우 큰 사회 문제까지로 변화될 염려도 없지 않으나 상당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에 맞는 생산을 통하여 무리한 낭비를 줄이는 길만이 이 나라의 양계산업이 재정비되며 새로운 기틀을 세워 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가축수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고로 부화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자료를 보고토록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방법이다. 그리고 양계업에 몸담고 있는 양계농민의 정신적 각성도 매우 중요하다. 자기 생업에 좀 더 열을 가해야 될 것이다.

양계장을 경영하는데 먼저 객관적인 요소에 잘 적응하면서 주관적인 결함을 과감하게 시정하여 보다 싼값으로 생산하는 슬기가 있어야만 한다. 생산 원가는 날로 상승하건만 생산품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 이런 여건에서 생존하는 길은 원가절감이란 방도 밖에 없다. 이차 산업에 비하여 로스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양계업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 체제나 관리체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과연 10년전이나 5년 전에 비하여 얼마 만큼의 내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왔는가. 스스로가 살펴보자. 닭과 더불어 애정을 쏟으며 정열을 불 태워 가며 긍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양계 농민 상을 이룩하자